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5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질병관리청-한국리서치 특별기획]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2023. 11. 15.

담당자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유은태 주무관
e-mail | yet419@korea.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질병관리청-한국리서치 특별기획]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여론 속의
여輿論論

조사 목적

-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었고 방역조치 또한 조정되며,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대비·대응전략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의 경험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의료대응, 사회·고용,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에 이어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위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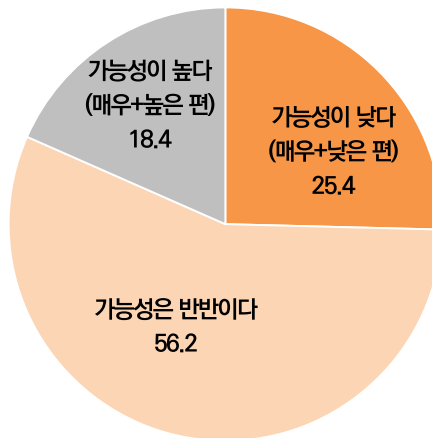
감염병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감염 가능성 ‘반반이다 56.2%’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이다’라는 인식이 56.2%로 과반을 넘는다.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5.4%로 ‘가능성이 높다(18.4%)’는 응답 대비 높다.

(단위: %)

감염병 감염 가능성, ‘반반이다 56.2%’



질문: 귀하가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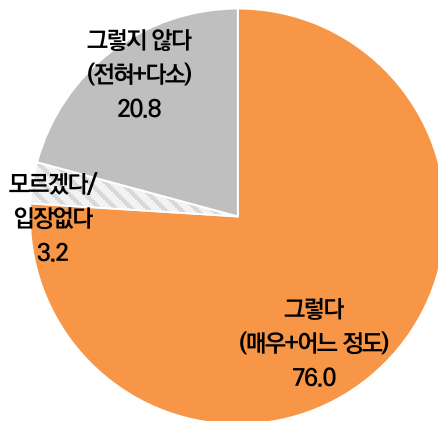
국내 가까운 시일 내 ‘신종 바이러스 유행 있을 것 76.0%’ 국내 발생 신종 바이러스는 ‘장기간 유행할 것 81.4%’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우리 사회의 일상을 회복했으나, 언제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대다수는 신종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유행을 예상하고 있다. 76.0%는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지 않다 20.8%). 81.4%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는 장기간 유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렇지 않다 16.4%).

특히 40대는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데 86.8%가 동의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30대 또한 79.1%가 동의하며,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30.4%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단위: %)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바이러스 유행 있을 것 76.0%



3·40대,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바이러스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 높은 편

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다소)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어느 정도)	모르겠다/입장없다	계
	(1,500)	1.7	19.1	20.8	54.5	21.6	76.0	3.2	100.0
성별									
남자	(744)	2.7	21.6	24.3	51.9	20.6	72.4	3.3	100.0
여자	(756)	0.7	16.6	17.3	57.0	22.6	79.6	3.1	100.0
연령									
18~29세	(244)	5.0	24.7	29.7	44.1	22.1	66.2	4.0	100.0
30대	(222)	0.5	17.3	17.7	48.7	30.4	79.1	3.2	100.0
40대	(270)	1.1	10.6	11.7	58.0	28.8	86.8	1.5	100.0
50대	(292)	0.3	18.9	19.3	55.4	21.9	77.3	3.4	100.0
60세이상	(472)	1.7	22.0	23.7	60.0	12.8	72.8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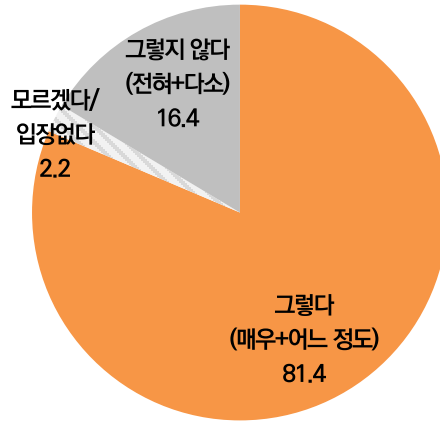
질문: 국내 신종감염병 전망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에 표시하여 주세요.
-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 있을 것 같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단위: %)

국내 발생 신종 바이러스는 장기간 유행할 것, 81.4%



40대는 10명 중 9명(89.3%)이 신종 바이러스의 장기간 유행 우려하고 있어

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다소)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어느 정도)	모르겠다/입장없다	계
	(1,500)	1.9	14.4	16.4	53.4	28.0	81.4	2.2	100.0
성별									
남자	(744)	2.7	16.1	18.8	51.4	26.9	78.3	2.9	100.0
여자	(756)	1.2	12.8	14.0	55.4	29.0	84.4	1.6	100.0
연령									
18-29세	(244)	5.1	18.7	23.8	40.7	33.1	73.9	2.3	100.0
30대	(222)	0.9	10.1	11.0	50.5	34.4	85.0	4.1	100.0
40대	(270)	0.4	9.2	9.6	51.1	38.2	89.3	1.1	100.0
50대	(292)	2.3	12.2	14.5	56.4	26.7	83.1	2.4	100.0
60세이상	(472)	1.5	18.6	20.1	60.9	17.2	78.1	1.8	100.0

질문: 국내 신종감염병 전망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에 표시하여 주세요.

-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는 신종 바이러스는 장기간 유행될 것 같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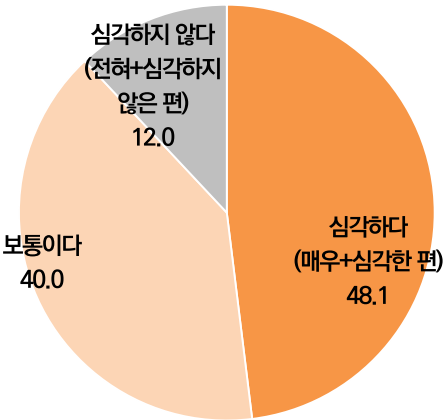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2명 중 1명(48.1%), ‘신종 바이러스 감염 후 건강피해 심각할 것’

2명 중 1명(48.1%)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 후 건강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보통’은 40.0%, ‘심각하지 않다’는 12.0%이다. 특히 감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신종 감염병 유행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에 대한 근심이 큰 편이다.

(단위: %)

신종 바이러스 감염 후, ‘건강피해 심각할 것이다 48.1%’



감염병 감염 가능성 높은 사람, 건강피해 우려 71.0%로 매우 높아

전체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	계
	(1,500)	1.1	10.9	12.0	40.0	42.9	5.1	48.1	100.0
감염병 감염 가능성									
낮다	(381)	3.2	22.7	26.0	41.6	29.2	3.3	32.5	100.0
반반이다	(844)	0.4	7.3	7.6	44.7	44.6	3.0	47.6	100.0
높다	(275)	0.4	5.4	5.7	23.3	56.8	14.2	71.0	100.0

질문: 귀하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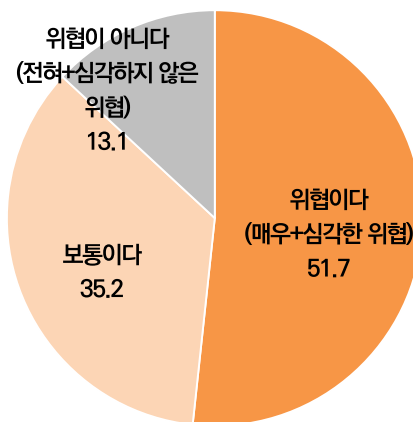
신종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나라에 ‘위협적 51.7%’ 우리나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44.7%’

2명 중 1명(51.7%)은 신종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나라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다. ‘보통’은 35.2%, ‘위협이 아니다’는 13.1%이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정 평가자의 신종 감염병 위험인식이 63.6%로 높다.

또한 44.7%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35.9%, ‘안전하다’는 19.4%이다. 절반 가량은 신종 바이러스가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나, 앞서 신종 바이러스 유행과 장기화를 우려하는 응답이 7~80%에 달한 것에 비하면 위험도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여성(51.5%)과 40대(52.6%)의 과반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단위: %)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나라에 위협이다 51.7%’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부정적인 집단(63.6%),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 느껴

전체	사례수 (명)	전혀 위협이 아니다	심각하지 않은 위협이다	위협이 아니다 (전혀+심각하지 않은 위협)	보통이다	심각한 위협이다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위협이다 (매우+심각한 위협)	계
	(1,500)	1.0	12.1	13.1	35.2	45.6	6.1	51.7	100.0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	(768)	1.2	15.9	17.1	40.6	38.0	4.3	42.3	100.0
못하고 있다	(605)	0.9	7.9	8.8	27.6	55.2	8.4	63.6	100.0
모르겠다	(127)	0.0	9.7	9.7	38.7	45.9	5.7	51.6	100.0

질문: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현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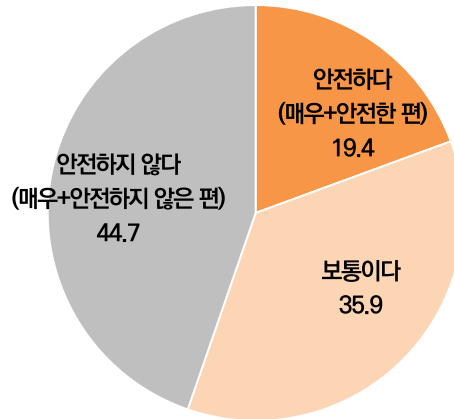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우리나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44.7%'



여성(51.5%)과 40대(52.6%)의 절반은 '감염병 안전 인식 낮아'

전체	사례수 (명)	매우 안전하다	안전한 편이다	안전하다 (매우+안전한 편)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매우+안전하지 않은 편)	계
	(1,500)	0.6	18.8	19.4	35.9	40.4	4.4	44.7	100.0
성별									
남자	(744)	1.2	21.7	22.9	39.2	32.9	4.9	37.8	100.0
여자	(756)	0.0	15.9	15.9	32.5	47.7	3.8	51.5	100.0
연령									
18-29세	(244)	0.5	23.0	23.5	36.1	36.3	4.1	40.4	100.0
30대	(222)	1.8	17.7	19.5	37.0	37.2	6.3	43.5	100.0
40대	(270)	0.8	13.8	14.6	32.8	46.8	5.8	52.6	100.0
50대	(292)	0.0	20.3	20.3	34.7	40.2	4.8	45.0	100.0
60세이상	(472)	0.4	19.0	19.4	37.7	40.4	2.5	42.9	100.0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감염병에 대한 회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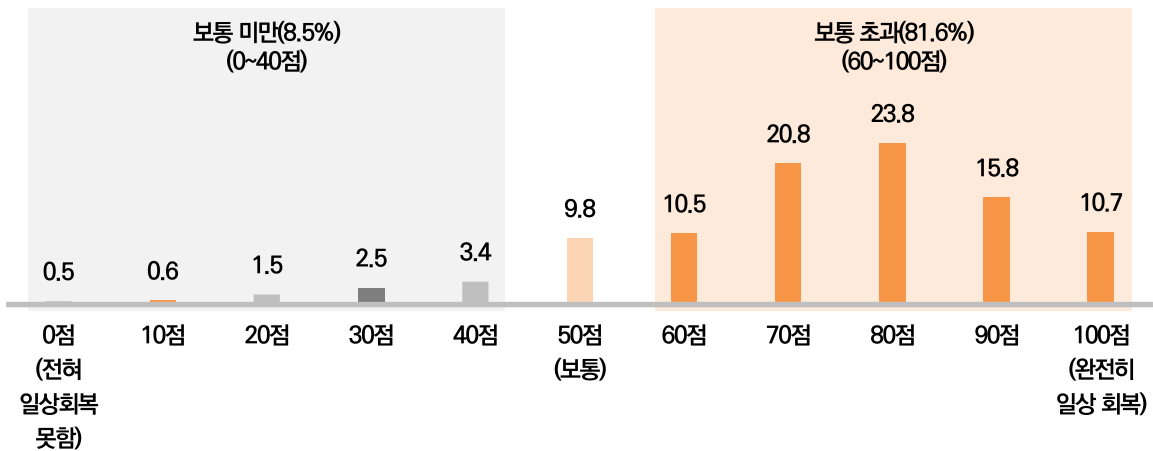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으로 '개인 일상을 회복했다 81.6%' 일상 회복도는 100점 만점에 72.3점

코로나19 이전으로 개인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0~100점까지 10점 단위로 물었다. 0점에 가까울수록 '일상회복을 하지 못함', 100점에 가까울수록 '일상을 회복함'에 가깝다. 81.6%의 대다수는 60점 이상으로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했다. '보통(50점)'은 9.8%,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0~40점)'는 8.5%이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을 구하면, 일상 회복도는 100점 만점에 72.3점이다(높을수록 일상 회복).

(단위: %)

코로나19 사태 이전 개인 일상 회복, 81.6%

일상 회복도(높을수록 회복)
72.3점



질문: 귀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개인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회복하셨으면 100점, 아직까지 전혀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보신다면 0점이라고 하면 일상이 돌아온 정도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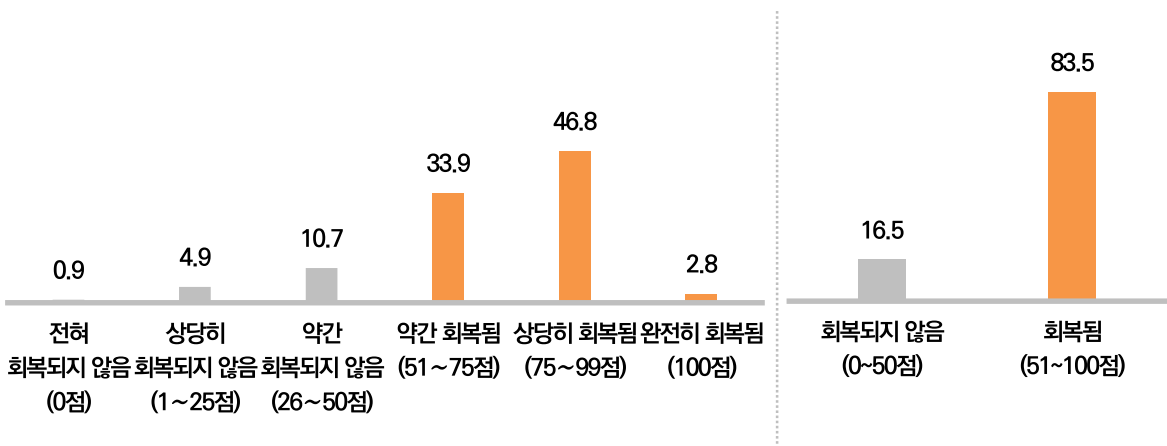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83.5%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했다는 인식이다(완전히 회복 2.8%+상당히 회복 46.8%+약간 회복 33.9%). '회복하지 않았다'는 16.5%로 회복했다는 인식 대비 현저히 낮다(전혀 회복되지 않음 0.9%+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4.9%+약간 회복되지 않음 10.7%). 50대 이상은 절반 가량이 '우리 사회가 일상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인식이다.

앞서 10명 중 8명(81.6%) 가량은 코로나19로부터 개인의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했는데,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일상을 회복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단위: %)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50대 이상,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했다'는 인식

전체	사례수 (명)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5~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계
	(1,500)	0.9	4.9	10.7	33.9	46.8	2.8	100.0
성별								
남자	(744)	1.4	4.9	10.9	31.6	47.9	3.3	100.0
여자	(756)	0.4	4.9	10.5	36.1	45.8	2.3	100.0
연령								
18~29세	(244)	2.0	4.4	15.1	31.6	41.7	5.3	100.0
30대	(222)	1.8	4.4	13.1	34.2	44.3	2.2	100.0
40대	(270)	0.7	5.1	12.5	40.8	38.3	2.6	100.0
50대	(292)	0.3	5.4	10.5	32.5	48.8	2.4	100.0
60세이상	(472)	0.4	4.8	6.4	31.7	54.3	2.3	100.0

질문: 귀하가 느끼시기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회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일상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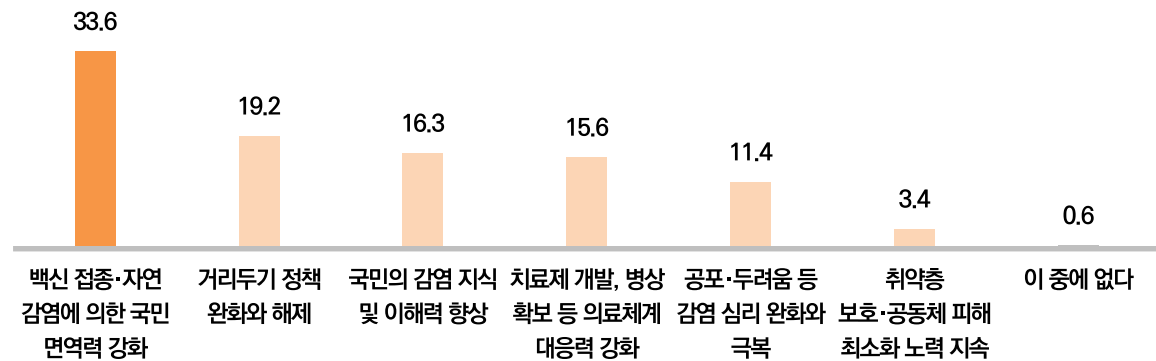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33.6%)’

반면, 회복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44.7%)’

앞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 수준이 높다고 답한 1,253명에게 물었다. 우리 사회 일상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33.6%)’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19.2%)’, ‘국민의 감염 지식 및 이해력 향상(16.3%)’, ‘치료제 개발,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15.6%)’가 뒤를 잇는다. 30대 이하에서는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 또한 우리 사회 회복에 기여한 주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단위: %)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33.6%)’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기여



18~29세·30대는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 60세 이상은 ‘국민 면역력 강화’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일상 회복 수준 높음’	사례수 (명)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	국민의 감염 지식 및 이해력 향상	치료제 개발,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	공포·두려 움 등 감염 심리 완화와 극복	취약층 보호·공동 체 피해 최소화 노력 지속	이 중에 없다	계
	(1,253)	33.6	19.2	16.3	15.6	11.4	3.4	0.6	100.0
성별									
남자	(616)	36.1	17.9	18.1	13.3	11.1	3.1	0.5	100.0
여자	(637)	31.3	20.4	14.5	17.8	11.7	3.7	0.6	100.0
연령									
18~29세	(192)	22.4	30.6	9.1	17.7	15.8	2.7	1.6	100.0
30대	(179)	27.4	27.6	11.3	12.2	17.0	3.9	0.6	100.0
40대	(221)	32.6	18.4	17.9	14.8	12.3	3.1	0.9	100.0
50대	(245)	31.2	18.5	19.7	17.3	8.1	4.9	0.4	100.0
60세이상	(417)	43.5	11.0	18.8	15.5	8.4	2.8	0.0	100.0

질문: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일상회복 수준 높다고 답한 1,2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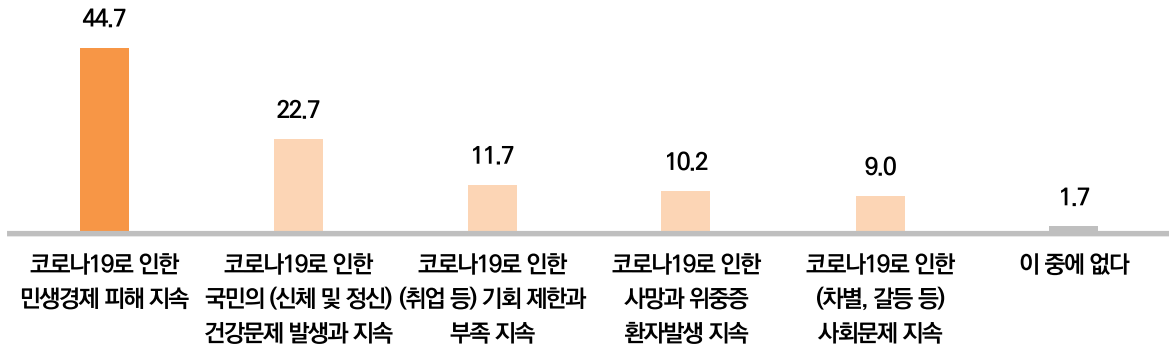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앞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 수준이 낮다고 답한 247명에게 물었다. 우리 사회의 일상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든 요인은 '민생경제 피해 지속(44.7%)'이라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 발생과 지속(22.7%)',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등) 기회 제한과 부족 지속(11.7%)' 등을 꼽는다. 18-29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기회 제한과 부족(취업 등)'을, 50대 이상은 '국민 건강문제 발생과 지속'을 꼽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

(단위: %)

우리 사회의 일상회복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 '민생경제 피해 지속(44.7%)'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18-29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기회 제한과 부족(취업 등)'을, 50대 이상은 '국민 건강문제 발생과 지속'을 이유로 꼽는 응답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일상 회복 수준 낮음'	사례수 (명)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 발생과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등) 기회 제한과 부족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위중증 환자발생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갈등 등) 사회문제 지속	이 중에 없다	계
	(247)	44.7	22.7	11.7	10.2	9.0	1.7	100.0
성별								
남자	(128)	46.3	16.7	12.4	11.8	10.3	2.4	100.0
여자	(119)	43.0	29.3	10.9	8.4	7.5	0.9	100.0
연령								
18-29세	(52)	37.1	18.5	19.4	6.4	14.4	4.3	100.0
30대	(43)	56.2	14.0	13.7	11.6	4.6	0.0	100.0
40대	(49)	43.6	18.2	8.2	16.1	10.0	3.9	100.0
50대	(47)	39.7	33.1	12.6	4.4	10.3	0.0	100.0
60세이상	(55)	48.5	28.7	5.2	12.3	5.3	0.0	100.0

질문: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십니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한 가지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일상회복 수준 낮다고 평가한 247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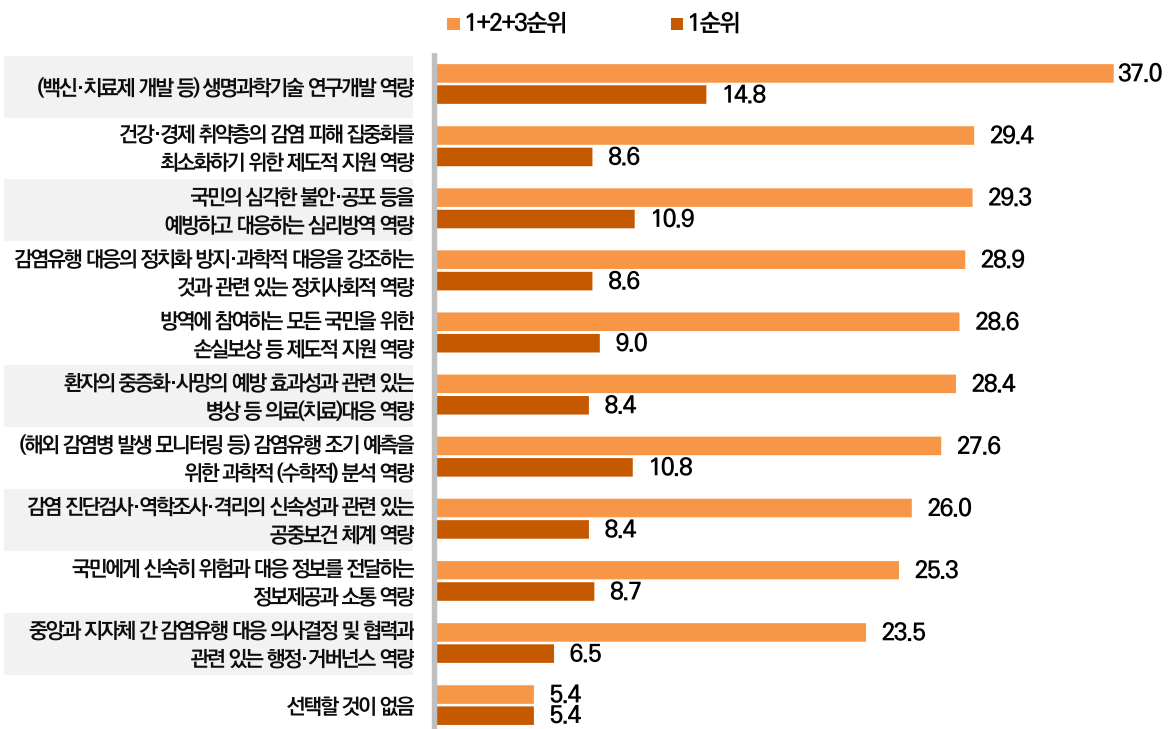
정부당국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 역량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정부당국의 역량 평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량 중,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이 가장 미흡하다고 답했다(37.0%, 1+2+3순위). 이외 역량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 이상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10명 중 3명은 ‘건강·경제 취약층의 감염 피해 집중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량(29.4%)’,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29.3%)’,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28.9%)’,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28.6%)’,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대응 역량(28.4%)’ 등이 미흡하다는 인식이다.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7.0%)’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

(단위: %)



질문: 다음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신종감염병의 대비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당국의 역량입니다.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어떤 역량이 비교적 미흡하게 발휘되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단위: %)

50대 이상,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가장 미흡한 역량으로 지적해

1+2+3 순위 응답	사례수 (명)	(백신·치료 제 개발 등) 생명과학 기술 연구개발 역량	건강·경제 취약층의 감염 피해 집중화를 최소화하 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량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 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 적 역량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	환자의 중증화·사 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 대응 역량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 (수학적) 분석 역량	감염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 과 소통 역량	중앙과 지자체 간 감염유행 대응 의사결정 및 협력과 관련 있는 행정·거버 넌스 역량	선택 할 것이 없음
	(1,500)	37.0	29.4	29.3	28.9	28.6	28.4	27.6	26.0	25.3	23.5	5.4
성별												
남자 (744)		37.8	29.9	28.8	28.9	31.8	26.5	26.6	27.7	25.1	23.6	4.4
여자 (756)		36.2	28.8	29.8	28.9	25.4	30.2	28.7	24.3	25.4	23.3	6.4
연령												
18~29세 (244)		26.7	30.9	34.8	31.0	31.2	30.0	27.1	20.8	25.3	26.2	5.3
30대 (222)		28.6	31.5	31.7	30.9	30.7	26.4	24.7	25.3	19.1	27.9	7.8
40대 (270)		34.7	31.2	26.6	26.7	34.8	31.6	23.8	27.9	22.0	24.3	5.5
50대 (292)		42.9	27.6	28.9	26.4	25.2	23.7	30.4	28.7	28.4	20.3	5.8
60세이상 (472)		43.9	27.6	27.1	29.6	24.7	29.5	29.8	26.2	28.1	21.5	3.9

질문: 다음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신종감염병의 대비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당국의 역량입니다.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어떤 역량이 비교적 미흡하게 발휘되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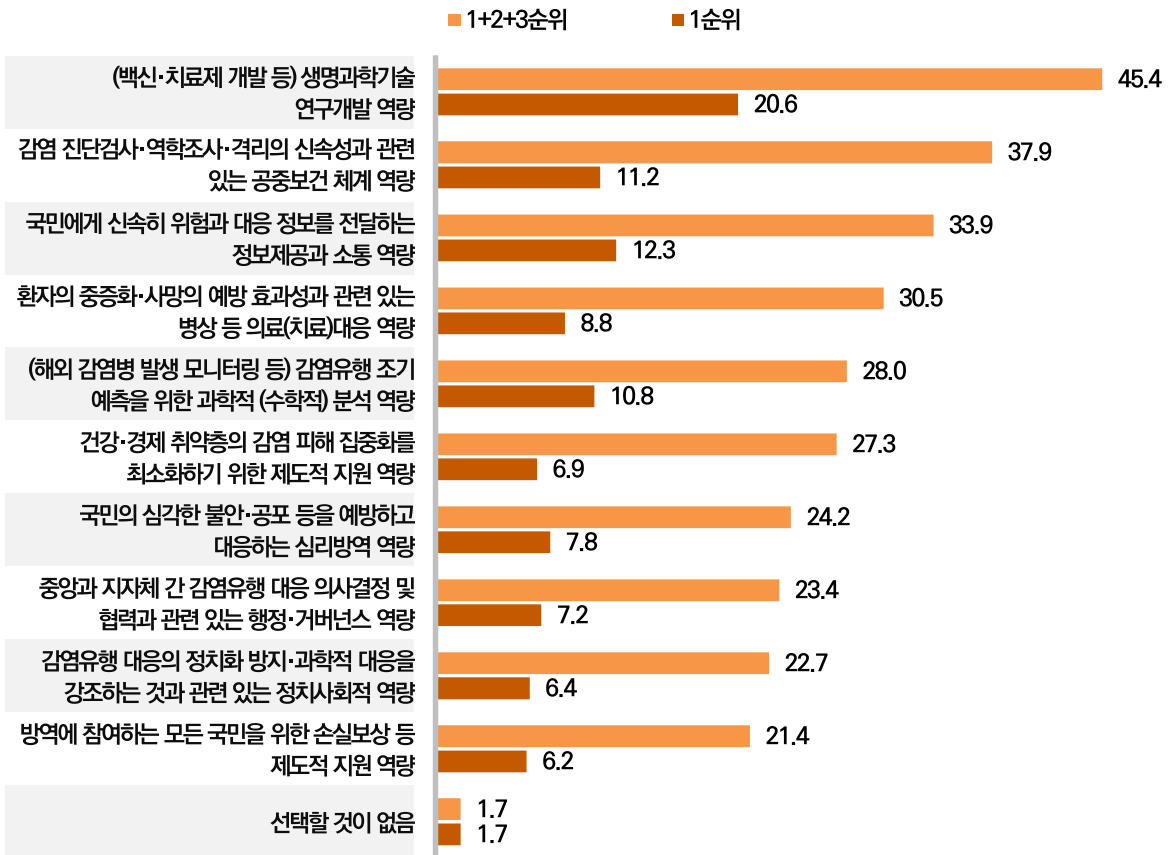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향후 신종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45.4%, 1+2+3순위). 이어서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37.9%)’,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33.9%)’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대응 역량(30.5%)’ 순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공중보건 체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40.0% 이상으로 높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단위: %)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45.4%)’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봐
이어서 공중보건 체계(37.9%) > 정보제공과 소통(33.9%) > 의료 대응(30.5%) 순으로 강화 필요해



질문: 앞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어떤 역량이 가장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0대 이상,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공중보건 체계 역량 강화' 필요해 연령대 높을수록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강화' 필요하다는 인식

(단위: %)

'1+2+3 순위 응답'	사례수 (명)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 기술 연구개발 역량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 대응 역량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수학적) 분석 역량	건강·경제 취약층의 감염 피해 집중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량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	중양과 지자체 간 감염유행 대응 의사결정 및 협력과 관련 있는 행정·거버넌스 역량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	선택할 것이 없음
	(1,500)	45.4	37.9	33.9	30.5	28.0	27.3	24.2	23.4	22.7	21.4	1.7
성별												
남자 (744)		48.3	36.8	32.1	28.0	28.9	26.1	24.0	23.5	23.1	23.0	2.1
여자 (756)		42.6	38.9	35.7	33.0	27.1	28.4	24.4	23.3	22.4	19.8	1.4
연령												
18-29세 (244)		40.6	27.4	25.5	35.1	31.2	32.4	26.7	23.0	26.4	26.3	1.8
30대 (222)		36.5	35.0	28.6	30.2	28.8	29.9	26.0	22.7	25.8	25.8	3.6
40대 (270)		41.6	38.8	34.1	30.7	25.4	27.8	20.8	24.3	22.3	28.7	1.8
50대 (292)		47.6	43.3	34.8	30.2	26.3	24.3	25.7	22.7	21.2	18.9	1.7
60세이상 (472)		53.0	40.7	40.1	28.5	28.5	24.9	23.1	24.0	20.5	14.1	0.8

질문: 앞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어떤 역량이 가장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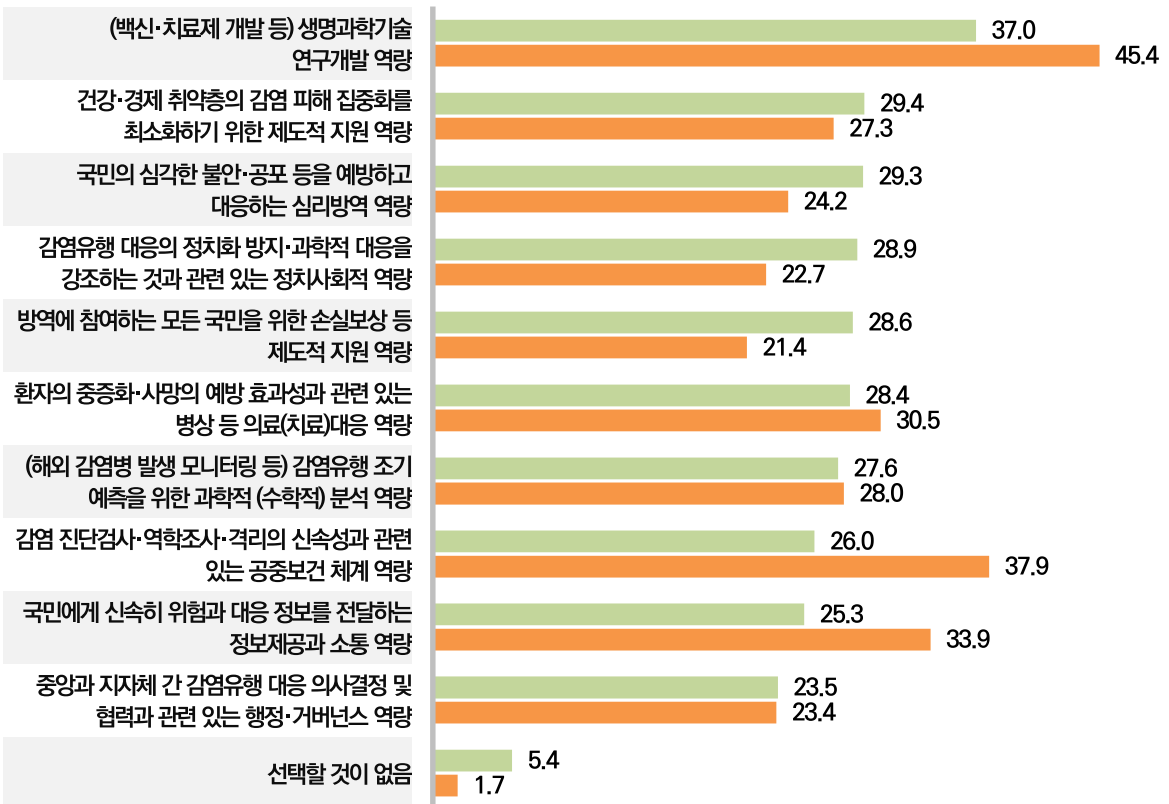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가장 미흡하고, 동시에 가장 강화가 필요한 역량 ‘공중보건 체계’,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도가 높지 않지만 강화가 시급한 역량

종합하자면, 사람들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37.0%, 1+2+3순위)’ 역량이 가장 미흡했고, 동시에 가장 강화해야 하는 역량이라고 답했다(45.4%). ‘공중보건 체계(미흡 26.0%, 강화 37.9%)’, ‘정보제공과 소통(미흡 25.3%, 강화 33.9%)’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도가 높지 않지만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단위: %)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가장 미흡하고, 동시에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하는 역량
‘공중보건 체계’,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도가 높지 않지만 강화가 시급한 역량

■ 미흡한 역량(1+2+3순위) ■ 강화할 역량(1+2+3순위)



질문1: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어떤 역량이 비교적 미흡하게 발휘되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질문2: 앞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어떤 역량이 가장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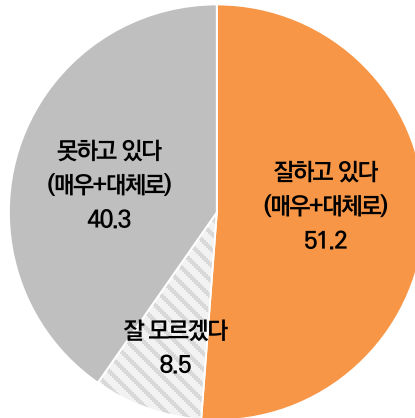
4 감염병 대응 주체 신뢰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잘하고 있다 51.2%'
다만 대통령실(29.4%)과 국회(11.5%) 신뢰도는 낮은 편**

2명 중 1명(51.2%)은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한 대응 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긍정 평가(51.2%)는 '못하고 있다(40.3%)'는 인식 대비 높다. 50대 이상은 과반이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위: %)

2명 중 1명(51.2%),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한 대응 '잘하고 있어'



50대 이상, 과반 이상이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어'
감염병 위험 인식이 낮은 집단, 5~60% 이상이 긍정 평가

전체	사례수 (명)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매우+대체로)	대체로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매우+대체로)	잘 모르겠다	계
	(1,500)	3.8	47.4	51.2	25.7	14.6	40.3	8.5	100.0
성별									
남자	(744)	4.7	46.5	51.2	26.8	16.0	42.8	6.0	100.0
여자	(756)	3.0	48.2	51.2	24.6	13.3	37.9	10.9	100.0
연령									
18~29세	(244)	2.2	36.7	38.9	32.5	13.3	45.8	15.3	100.0
30대	(222)	2.7	38.2	40.9	33.0	16.7	49.7	9.4	100.0
40대	(270)	1.8	41.6	43.4	25.2	22.1	47.3	9.3	100.0
50대	(292)	4.0	47.9	51.9	24.8	16.6	41.4	6.7	100.0
60세이상	(472)	6.2	60.2	66.3	19.7	8.8	28.5	5.1	100.0

질문: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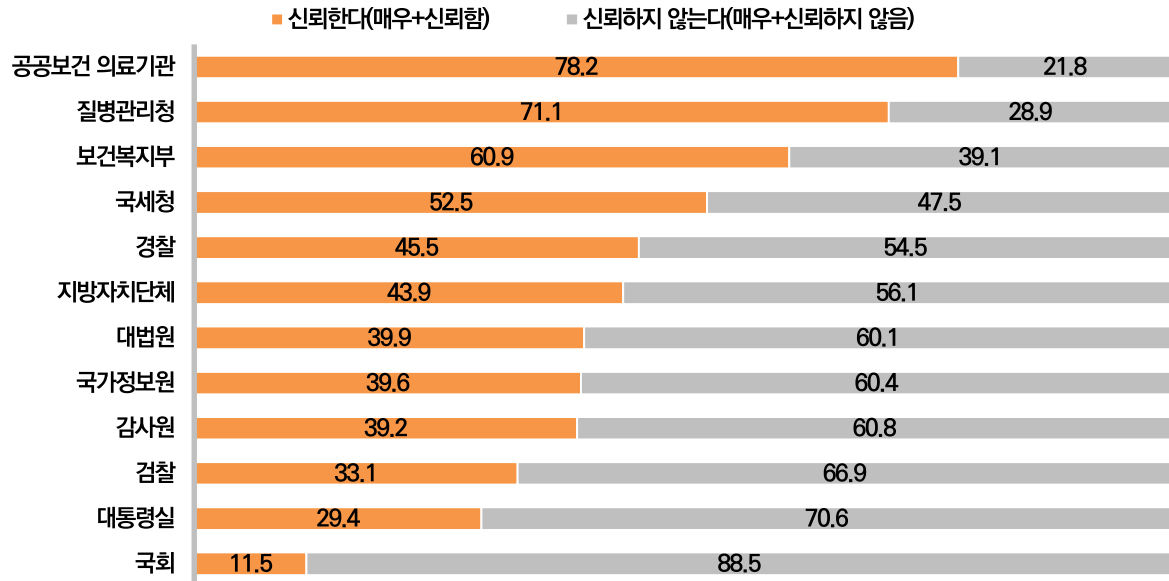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78.2%로 가장 높다. 이를 비롯해 ‘질병관리청(71.1%)’, ‘보건복지부(60.9%)’와 같은 보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공적 주체 대비 높은 편이다.

78.2%가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뢰

(단위: %)

질병관리청(71.1%), 보건복지부(60.9%)와 같은 보건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대에서 최소 60% 이상

'신뢰한다 (매우+ 신뢰함) 응답'	사례수 (명)	공공보건 의료기관	질병 관리청	보건 복지부	국세청	경찰	지방자 치단체	대법원	국가 정보원	감사원	검찰	대통령 실	국회
(1,500)		78.2	71.1	60.9	52.5	45.5	43.9	39.9	39.6	39.2	33.1	29.4	11.5
성별													
남자 (744)		76.4	69.9	57.3	51.5	44.2	45.1	42.9	40.6	40.1	35.1	29.9	11.4
여자 (756)		79.9	72.2	64.4	53.4	46.9	42.7	37.0	38.6	38.2	31.1	28.9	11.6
연령													
18~29세 (244)		79.6	75.4	69.1	58.8	49.2	49.7	46.2	56.5	48.8	38.2	23.5	22.2
30대 (222)		73.4	68.8	59.3	52.0	42.9	36.3	40.8	37.6	33.7	29.1	19.1	12.7
40대 (270)		72.4	61.4	42.5	40.8	37.8	29.5	29.2	26.7	26.0	19.3	17.5	6.3
50대 (292)		75.3	65.4	56.4	49.9	46.6	42.5	40.5	32.4	33.8	28.0	25.0	14.1
60세이상 (472)		84.8	79.0	70.6	57.7	48.7	53.5	42.1	43.5	47.6	43.3	46.9	6.8

질문: 다음의 공적인 주체를 현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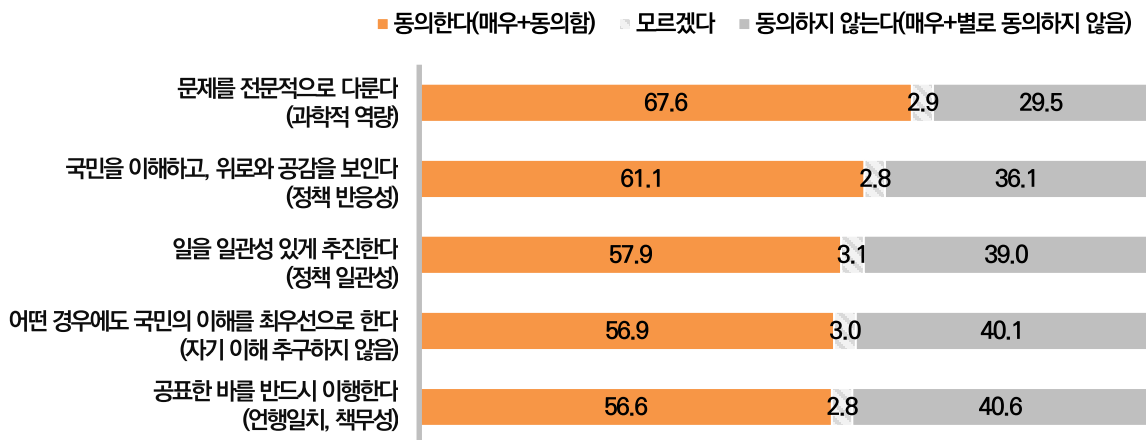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신뢰도 높고 역량 평가도 긍정적

10명 중 7명(71.1%)이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 대한 역량 평가 역시 긍정적이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학적 역량(67.6%)’과 ‘국민을 이해하고 위로와 공감을 보이는 정책 반응성(61.1%)’에 대한 긍정평가는 60.0%를 넘는다.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 일관성(57.9%)’,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기 이해 추구하지 않음(56.9%)’, ‘공표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는 언행일치·책무성(56.6%)’도 과반을 넘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긍정 혹은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집단에서는 특히 70~80%가 질병관리청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다.

(단위: %)

질병관리청의 역량 평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과학적 역량(67.6%)’과 ‘정책 반응성(61.1%)’에 대한 긍정평가는 60%를 넘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집단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평가 우호적’

전체	사례수 (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과학적 역량)	국민을 이해하고, 위로와 공감을 보인다 (정책 반응성)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정책 일관성)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한다(자기 이해 추구하지 않음)	공표한 바를 반드시 이행한다 (언행일치, 책무성)
	(1,500)	67.6	61.1	57.9	56.9	56.6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	(768)	80.4	75.3	70.8	70.6	68.4
못하고 있다	(605)	53.0	44.6	43.4	40.9	42.4
모르겠다	(127)	59.6	53.7	48.9	50.4	53.6
질병관리청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34)	33.9	29.6	26.1	28.4	24.0
신뢰함	(1,066)	81.3	73.9	70.8	68.5	69.9

질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온 질병관리청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생각은 아래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행태 및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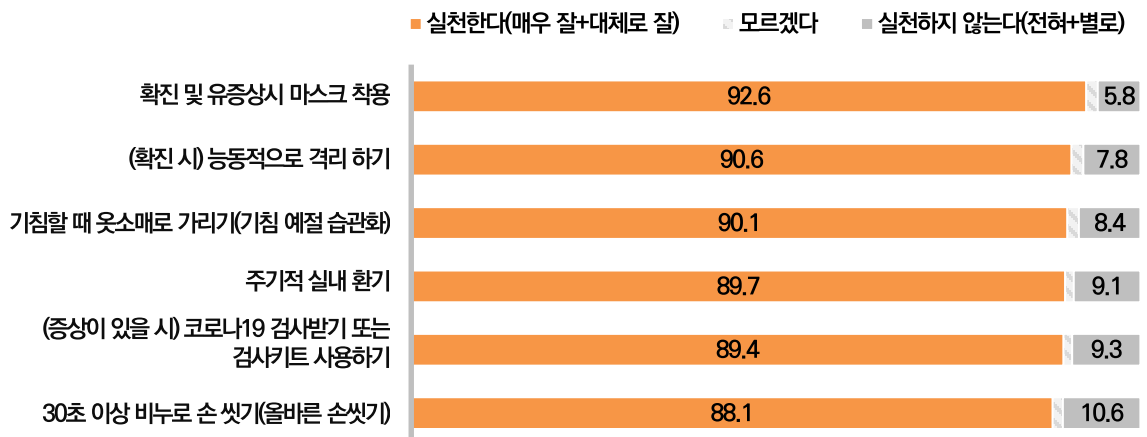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잘 실천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공동체 의식(68.3%)'과 '실천 의지(60.5%)' 중요해

개인별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전반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 '확진 및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92.6%)', '(확진 시) 능동적으로 격리 하기(90.6%)',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기침 예절 습관화)(90.1%)'는 모두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90.0% 이상이다.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으나, 이 역시도 88.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위: %)

일상생활 방역수칙, 전반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어'



질문: 귀하 본인은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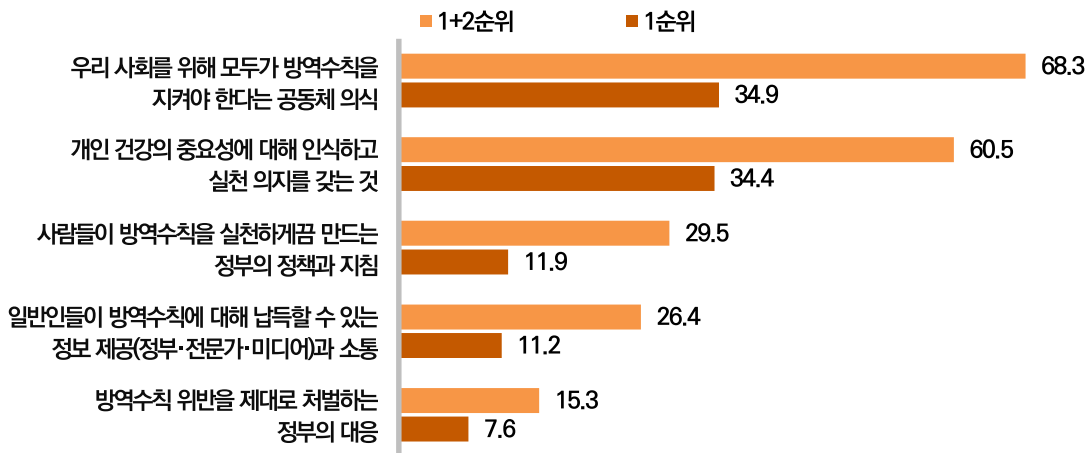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나와 주변 사람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대다수는 ‘우리 사회를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68.3%, 1+2순위)’과 ‘개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갖는 것(60.5%)’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정부의 정책과 지침(29.5%)’, ‘일반인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정부·전문가·미디어)과 소통(26.4%)’의 중요도는 30.0% 수준이고 ‘방역수칙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5.3%에 그친다. 방역수칙 준수에는 외부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은 ‘공동체 의식(68.3%)’과 ‘실천 의지(60.5%)’



질문: 나와 주변 사람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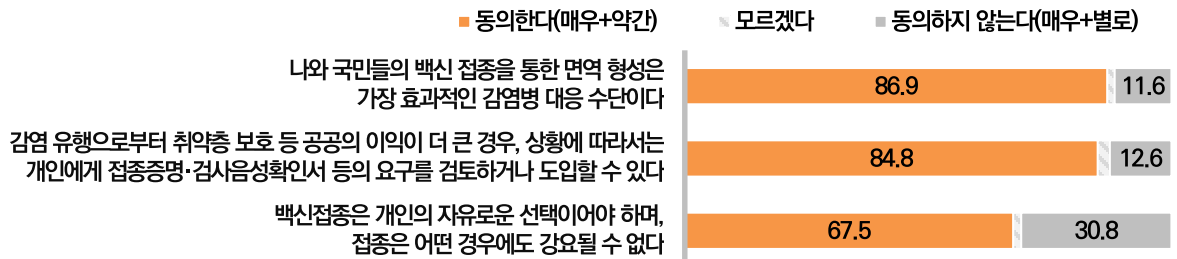
6 예방접종 참여의향

예방접종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 86.9%' 다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인식도 67.5%로 과반 넘어

86.9%는 '나와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이어서 '감염 유행으로부터 취약층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접종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84.8%)'고 답했다. 백신접종을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 인식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67.5%는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고 답했다. 50대 이상의 절반 가량은 '백신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라는 데 '매우 그렇다'고 답했지만 40대 이하는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 86.9%' 다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인식도 67.5%로 과반 넘어

(단위: %)



50대 이상, 절반 가량이 '백신접종 효과 매우 신뢰' 40대 이하, 백신접종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 자율성 매우 존중'

전체	사례수 (명)	나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다		감염 유행으로부터 취약층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접종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약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약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약간)
연령	(1,500)	45.1	86.9	37.1	84.8	29.4	67.5
18~29세	(244)	34.6	80.8	36.6	78.5	37.9	74.2
30대	(222)	34.4	80.0	33.5	79.6	35.2	73.5
40대	(270)	38.9	86.1	36.4	85.0	34.7	76.7
50대	(292)	46.6	90.2	34.4	86.5	27.3	68.8
60세이상	(472)	58.3	91.6	41.0	89.4	20.5	55.2

질문: 귀하께서는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진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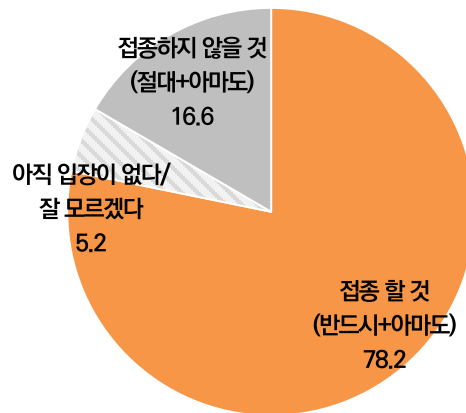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대상자의 78.2%, '백신 접종할 것'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접종 안전성(73.5%)'과 '접종 효과(62.7%)'에 대한 의문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올해 10월에 시행할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대상자 410명에게 백신접종 의향을 물었다. '접종할 것'이라는 응답이 78.2%로 '접종하지 않을 것(16.6%)'이라는 응답을 월등히 앞선다. 백신 권고 대상자 모두 접종 의향이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4.2%이다.

(단위: %)

올해 10월에 시행할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대상자의 78.2%, '백신 접종할 것'



60세 이상, '반드시 백신접종을 할 것이다' 44.2%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대상'	사례수 (명)	절대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접종하지 않을 것 (절대+아마도)	아마도 접종할 것이다	반드시 접종할 것이다	접종 할 것 (반드시+아마도)	아직 입장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410)	2.5	14.1	16.6	40.9	37.3	78.2	5.2	100.0
성별									
남자	(211)	2.5	11.3	13.8	42.6	40.7	83.3	2.9	100.0
여자	(199)	2.5	17.0	19.5	39.2	33.7	72.9	7.6	100.0
연령									
18-29세	(21)	5.5	25.0	30.5	42.2	16.3	58.5	11.0	100.0
30대	(28)	14.2	17.8	32.0	42.5	21.5	64.0	4.0	100.0
40대	(21)	0.0	13.7	13.7	55.1	26.5	81.6	4.7	100.0
50대	(48)	4.4	10.4	14.7	60.1	19.0	79.2	6.1	100.0
60세이상	(291)	1.0	13.5	14.6	36.5	44.2	80.7	4.8	100.0

질문: 올해 예정되어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귀하의 접종 의향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응답자 수: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대상 4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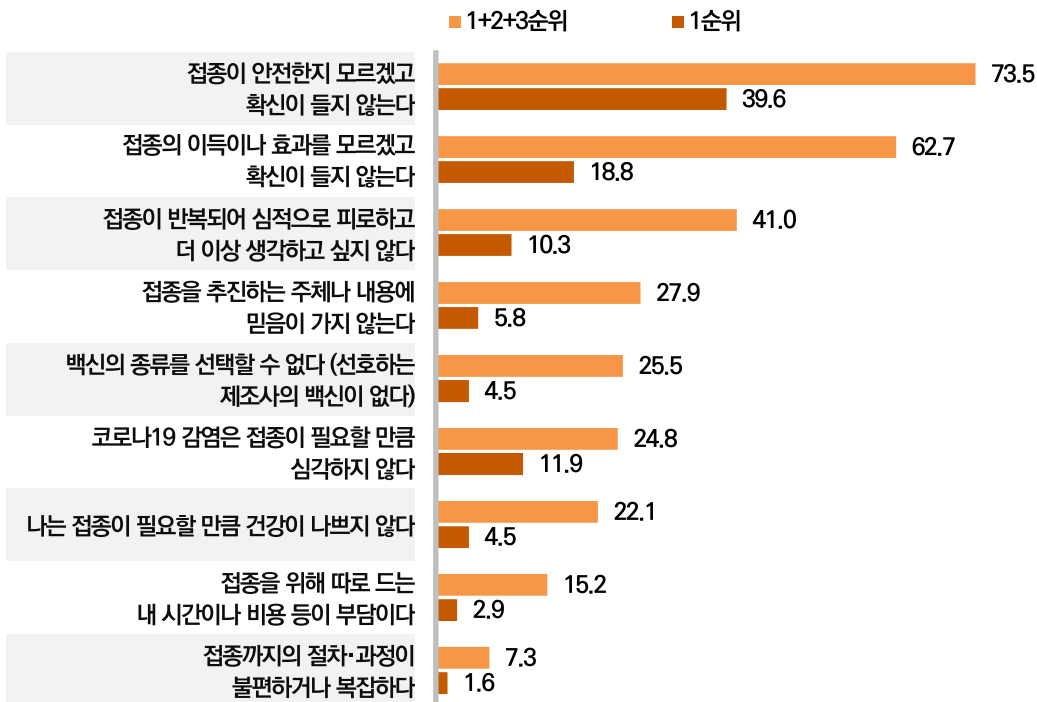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대상 중 백신접종 의향 없는 68명에게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다. 주요 이유로 '접종이 안전한지 모르겠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73.5%, 1+2+3순위)', '접종의 이득이나 효과를 모르겠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62.7%)'를 꼽는다. 접종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접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접종이 반복되어 심적으로 피로하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41.0%)', '접종을 추진하는 주체나 내용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27.9%)'를 이유로 응답했다. 반복된 접종으로 인한 피로감, 관련 주체에 대한 불신도 접종을 망설이게 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꼽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접종 안전성 의문(73.5%)'
이어서 '접종의 이득이나 효과에 대한 불신(62.7%)'을 주요 이유로 꼽아**

(단위: %)



질문: 코로나19 접종을 망설이시거나 접종하지 않으시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응답자 수: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대상 중 백신접종 의향 없는 68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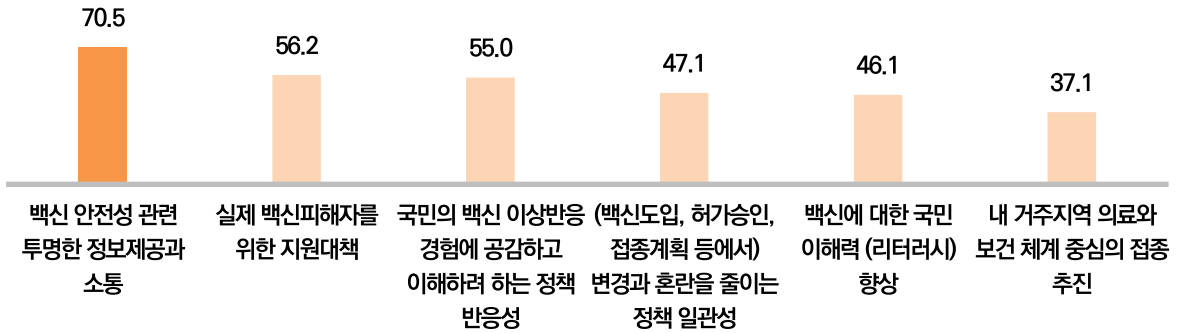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 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백신 안전성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70.5%)’ 가장 중요해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는 안전성과 접종 효과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국민 신뢰를 증대하기 위해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70.5%는 ‘백신 안전성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실제 백신접종 피해자 지원대책(56.2%)’,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공감과 이해하는 정책 반응성(55.5%)’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접종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50대 이상은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이해력(리터러시)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지 중심의 접종 추진’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국민 신뢰 증대를 위해, ‘백신 안전성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70.5%)’ 가장 중요해

(단위: %)



50대 이상, 백신 관련 국민 신뢰 증대를 위해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이해력 향상’ 필요해
고령일수록 ‘거주지 중심의 접종 추진’ 중요해

전체	사례수 (명)	백신 안전성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	실제 백신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	국민의 백신 이상반응 경험에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는 정책 반응성	(백신도입, 허가승인, 접종계획 등에서) 변경과 혼란을 줄이는 정책 일관성	백신에 대한 국민 이해력(리터러시) 향상	내 거주지역 의료와 보건 체계 중심의 접종 추진	기타
	(1,500)	70.5	56.2	55.0	47.1	46.1	37.1	0.5
연령								
18-29세	(244)	65.3	56.4	45.9	46.4	36.6	28.1	0.5
30대	(222)	61.1	59.2	53.4	49.5	41.7	31.3	0.9
40대	(270)	65.4	57.3	59.7	46.9	39.2	40.9	1.1
50대	(292)	73.3	52.9	55.7	48.6	44.2	37.4	0.7
60세이상	(472)	78.8	56.1	57.4	45.5	58.2	42.0	0.0

질문: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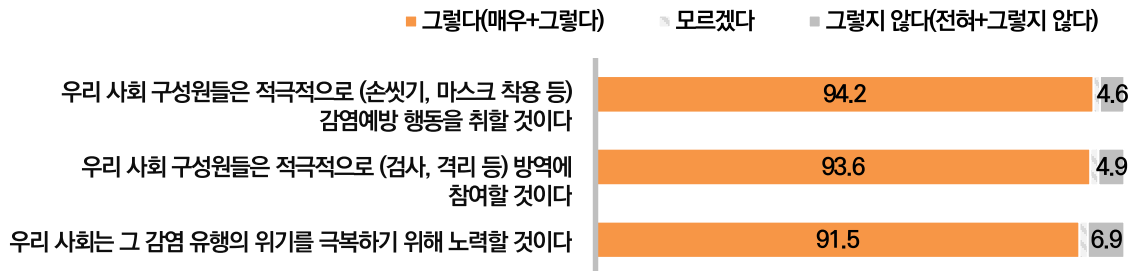
7 방역 규범

우리 사회 방역 규범 실천, 90.0% 이상으로 높아

10명 중 9명 이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감염예방 행동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행동을 취할 것이다(94.2%)’, ‘우리 사회는 그 감염 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93.6%)’,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 격리 등) 방역에 참여할 것이다(91.5%)’라는 진술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18-29세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방역 규범을 잘 실천할 것이라는 진술에 ‘매우 그렇다’는 인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40대 이상은 과반 이상이 모든 방역 규범에 있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위: %)

10명 중 9명 이상, 신종 감염병 유행 시에 ‘감염예방 행동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18-29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방역 규범 실천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40대 이상, 과반 이상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

전체	사례수 (명)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 감염 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 격리 등) 방역에 참여할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00)	55.8	94.2	52.6	93.6	46.5	91.5
성별							
남자	(744)	52.1	94.0	52.7	92.7	44.0	90.1
여자	(756)	59.5	94.5	52.5	94.4	49.0	92.8
연령							
18-29세	(244)	43.1	89.5	43.5	90.7	36.3	83.9
30대	(222)	52.3	93.6	45.0	91.9	41.0	86.1
40대	(270)	60.9	93.4	56.8	91.6	52.7	91.2
50대	(292)	56.8	95.6	52.0	93.6	43.3	93.6
60세이상	(472)	60.6	96.6	58.7	96.9	52.7	96.7

질문: 귀하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이 다시 발생, 유행하는 경우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8 감염병 소통 및 정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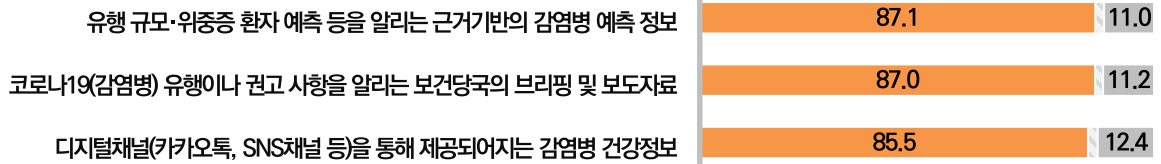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이상, 보건당국이 제공한 감염병 관련 정보 ‘도움이 된다’

10명 중 8명 이상은 보건당국이 제공한 감염병 정보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근거기반의 감염병 예측 정보(87.1%)’, ‘코로나19(감염병)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87.0%)’, ‘디지털채널(카카오톡, SNS채널 등)을 통해 제공하는 감염병 건강정보(85.5%)’,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0% 수준에 그친다. 특히 60세 이상과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집단의 절반 가량은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단위: %)

10명 중 8명 이상, 보건당국이 제공한 감염병 관련 정보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된다(매우+약간) ■ 모르겠다 ■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별로)



60세 이상, 절반 가량은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사례수 (명)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근거기반의 감염병 예측 정보		코로나19(감염병)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디지털채널(카카오톡, SNS채널 등)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감염병 건강정보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매우+약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매우+약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매우+약간)
(1,500)		41.1	87.1	43.2	87.0	38.1	85.5
성별							
	남자 (744)	41.6	85.0	44.6	86.0	37.3	84.1
	여자 (756)	40.6	89.3	41.9	88.0	38.9	86.9
연령							
	18~29세 (244)	35.5	82.0	32.7	83.5	35.6	82.3
	30대 (222)	36.7	82.3	37.0	83.3	32.6	79.6
	40대 (270)	34.3	86.2	38.4	84.4	30.9	84.7
	50대 (292)	39.2	86.5	43.3	87.5	36.5	85.4
	60세이상 (472)	51.2	93.0	54.4	91.7	47.2	90.4
질병관리청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34)	25.7	74.4	23.9	72.8	25.1	75.6
	신뢰함 (1,066)	47.4	92.3	51.1	92.8	43.4	89.5

질문: 보건당국이 제공한 다음의 정보는 귀하의 감염병 유행 이해나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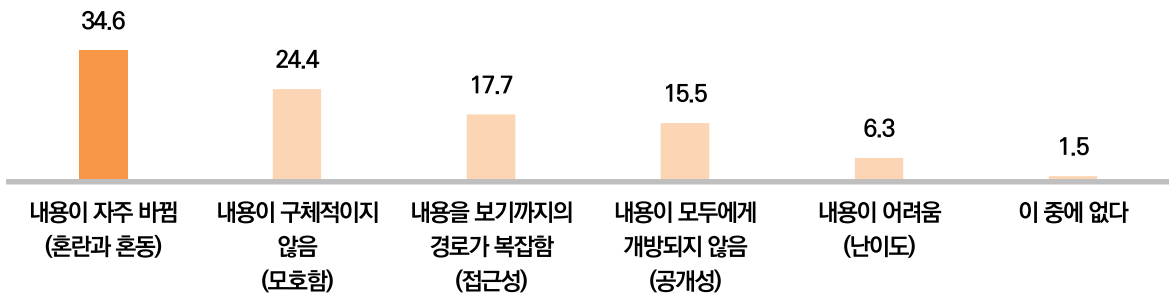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치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감염병 정보가 도움이 안 된 이유, ‘내용이 자주 바뀌어 혼선을 주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자주 바뀌어(34.6%)’ 혼란과 혼동을 준다는 점이다. 이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24.4%)’, ‘내용을 보기까지 경로가 복잡함(17.7%)’을 꼽는다. 특히 18~29세·30대는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접근성’을 지적하고, 50대 이상은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아’ 감염병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단위: %)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안 된 주된 이유, ‘내용이 자주 바뀌어(34.6%)’
이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24.4%)’, ‘내용을 보기까지 경로가 복잡함(17.7%)’



18~29세·30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상대적으로 높아
50대 이상, 정보 공개성 지적하는 응답 높아

‘보건당국 제공 정보 도움 안 됨’	사례수 (명)	내용이 자주 바뀜 (혼란과 혼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모호함)	내용을 보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함 (접근성)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음 (공개성)	내용이 어려움 (난이도)	이 중에 없다	계
	(320)	34.6	24.4	17.7	15.5	6.3	1.5	100.0
성별								
남자	(178)	31.3	25.5	20.7	15.1	6.3	1.1	100.0
여자	(142)	38.7	23.0	13.9	16.1	6.3	2.0	100.0
연령								
18~29세	(65)	39.2	25.3	27.4	3.1	3.5	1.5	100.0
30대	(57)	28.3	20.9	26.3	17.3	7.2	0.0	100.0
40대	(65)	36.4	25.4	16.7	12.4	7.6	1.5	100.0
50대	(67)	36.8	19.2	8.8	23.7	8.6	2.9	100.0
60세이상	(65)	31.4	30.8	10.5	21.1	4.7	1.4	100.0

질문: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답자 수: 보건당국이 제공한 감염병 관련 정보가 감염병에 대한 이해 및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320명

(다음 중 하나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응답한 경우임)

- 코로나19(감염병)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근거기반의 감염병 예측 정보
- 디지털채널(카카오톡, SNS채널 등)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감염병 건강정보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9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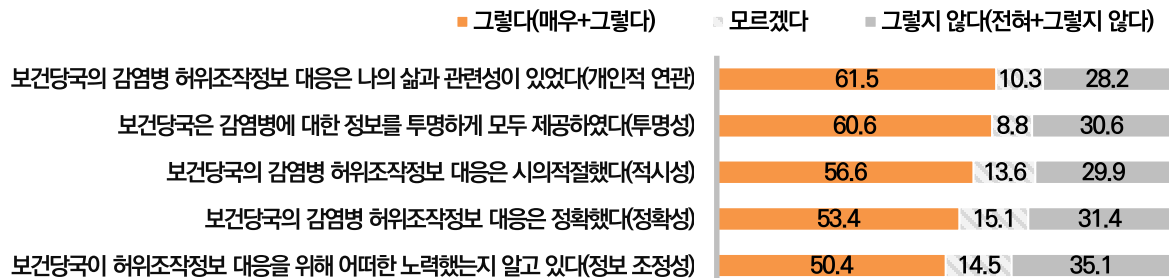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 보건당국의 가짜뉴스 대응은 나의 삶과 관련있다 61.5%

과반 이상은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1.5%는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나의 삶과 관련성이 있었다(개인적 연관)’고 답했고, 60.6%는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모두 제공하였다(투명성)’고 답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의 적시성(56.6%)’, ‘대응 정확성(53.4%)’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보건당국이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50.4%)’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그렇지 않다(35.1%)’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자,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집단은 6~70% 가량이 보건당국의 가짜뉴스 대응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과반 이상,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 61.5%, ‘보건당국의 감염병 가짜뉴스 대응은 나의 삶과 관련있다’ 인식

(단위: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자, 질병관리청 신뢰하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가짜뉴스 대응 방식 ‘긍정적’

‘그렇다 (매우+그렇다)’ 응답	사례수 (명)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나의 삶과 관련성이 있었다(개인적 연관)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모두 제공하였다(투명성)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시의적절했다 (적시성)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정확했다(정확성)	보건당국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다(정보 조정성)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	(1,500)	61.5	60.6	56.6	53.4	50.4
잘하고 있다	(768)	65.1	71.0	66.9	63.7	58.1
못하고 있다	(605)	58.3	49.3	46.0	42.6	43.7
모르겠다	(127)	54.6	51.3	44.2	42.9	35.8
질병관리청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34)	51.3	40.1	39.8	34.8	36.8
신뢰함	(1,066)	65.6	68.9	63.4	61.0	55.9

질문: 보건당국의 감염병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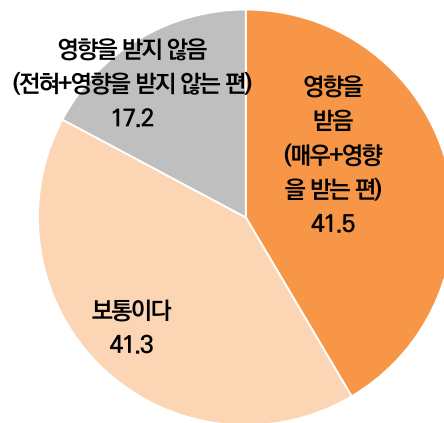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는 ‘감염병 인식 및 예방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41.5%

41.5%는 디지털 채널(유튜브,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접한 정보로 감염병 인식 및 예방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17.2%)’는 응답 대비 2배 이상 높다. ‘보통’은 41.3%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한 정보가 감염병 대응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기 보다는, 때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혹은 보통 수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응답이다.

(단위: %)

디지털 채널을 통해 얻은 정보가 감염병 인식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받는다’ 41.5%, ‘보통이다’ 41.3%



질문: 디지털 채널(유튜브,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접한 정보로 귀하의 감염병 인식 및 예방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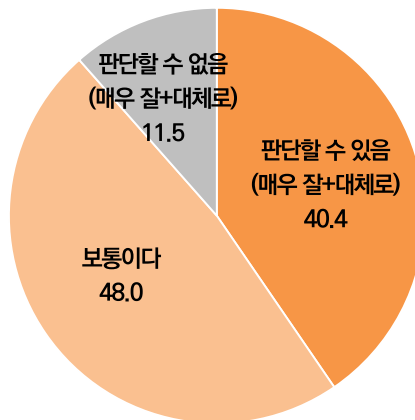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새로 얻은 감염병 정보 진위여부 ‘판단할 수 있다 40.4%’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40.4%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해 ‘판단할 수 없다(11.5%)’는 인식 대비 높다. ‘보통’은 48.0%로 절반에 달한다. 60세 이상(50.3%)은 절반 가량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18~29세는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19.5%로 다른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다.

(단위: %)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접촉 시, ‘진위여부 판단할 수 있다 40.4%’
‘보통이다 48.0%’



60세 이상, ‘새로운 감염병 정보 진위여부 판단 가능 50.3%’
반면, 18~29세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19.5%)

전체	사례수 (명)	매우 잘 판단할 수 있다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음 (매우 잘+대체로)	보통이다	대체로 판단할 수 없다	매우 잘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음 (매우 잘+대체로)	계
	(1,500)	2.0	38.4	40.4	48.0	10.8	0.8	11.5	100.0
성별									
남자	(744)	2.7	40.9	43.5	46.3	9.4	0.7	10.2	100.0
여자	(756)	1.4	36.0	37.4	49.7	12.1	0.8	12.9	100.0
연령									
18~29세	(244)	4.1	33.1	37.1	43.3	18.5	1.0	19.5	100.0
30대	(222)	3.2	29.2	32.3	56.1	10.2	1.4	11.6	100.0
40대	(270)	0.7	31.4	32.1	57.1	8.7	2.2	10.9	100.0
50대	(292)	1.7	39.5	41.2	49.0	9.8	0.0	9.8	100.0
60세이상	(472)	1.5	48.8	50.3	40.9	8.8	0.0	8.8	100.0

질문: 귀하는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정보의 진위여부를 얼마나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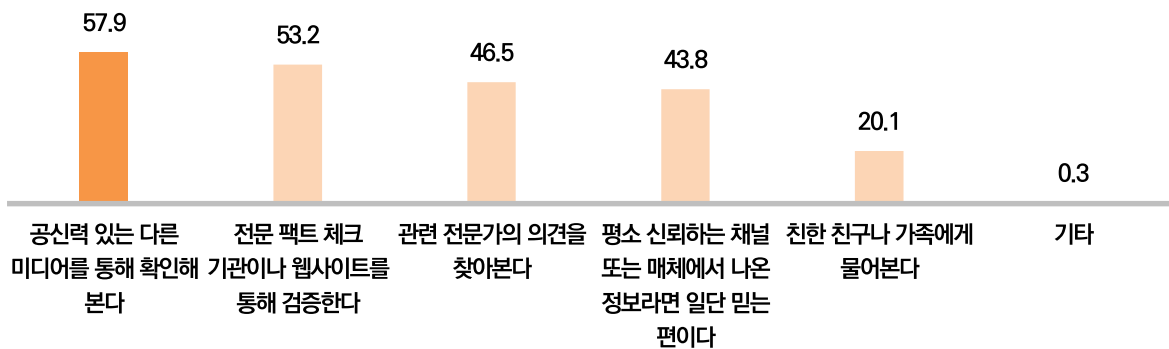
새로 얻은 감염병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명 중 1명, '공신력 있는 다른 미디어(57.9%)' 혹은 '전문 팩트 체크 기관이나 웹사이트(53.2%)'를 통해 검증

2명 중 1명은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공신력 있는 다른 미디어(57.9%)'나 '전문 팩트 체크 기관 및 웹사이트(53.2%)'를 통해 확인한다고 답했다. 46.5%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본다'고 답했다. 사실 검증 없이 '평소 신뢰하는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면 일단 믿는다는 인식'이 43.8%로 낮지 않다. 앞서 60세 이상은 스스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50.3%), 평소 신뢰하는 매체를 통한 정보는 일단 믿는다고 답했다(61.6%). 스스로 정보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나, 평소 신뢰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가 공존한다.

새로 얻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명 중 1명은 '공신력 있는 다른 미디어(57.9%)' 혹은 '전문 팩트 체크 기관이나 웹사이트(53.2%)'를 통해 검증

(단위: %)



60세 이상, '평소 신뢰하는 매체를 통해 접한 새로운 감염병 정보는 일단 믿는 편(61.6%)'

전체	사례수 (명)	공신력 있는 다른 미디어를 통해 확인해 본다	전문 팩트 체크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한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본다	평소 신뢰하는 채널 또는 매체에서 나온 정보라면 일단 믿는 편이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본다	기타
	(1,500)	57.9	53.2	46.5	43.8	20.1	0.3
성별							
남자	(744)	57.7	54.3	45.0	42.6	18.6	0.3
여자	(756)	58.0	52.1	47.9	45.1	21.5	0.3
연령							
18~29세	(244)	62.5	56.9	40.4	25.8	26.1	0.0
30대	(222)	57.4	54.1	48.9	30.1	20.3	0.5
40대	(270)	62.7	55.7	47.4	38.9	17.7	0.7
50대	(292)	57.8	48.8	48.2	45.3	18.6	0.0
60세이상	(472)	53.0	52.1	46.8	61.6	19.1	0.2

질문: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떻게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응답자 수: 1,500명

조사기간: 2023. 10. 11. ~ 10.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9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5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5\%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9,542명, 조사참여 1,915명, 조사완료 1,500명 (요청대비 15.7%, 참여대비 78.3%)
조사일시	• 2023년 10월 11일 ~ 10월 1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